

포스트모던 문화와 지식인에 대한 베아뜨리스 사를로의 시각

조영실(서울대)*

베아뜨리스 사를로(Beatriz Sarlo)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문학이론가이자 현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론가이다. 그의 지적 작업들은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 사회의 민주적인 정치, 민주적인 문화의 형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70년대부터 줄기차게 좌파 지식인으로서 활동해왔고 그 덕분에 오늘날 아르헨티나 지성계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비록 좌파적 입장을 취하긴 하지만 60, 70년대의 아르헨티나 급진 좌파가 노정한 실천적 오류를 경계하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에 걸맞는 지식인의 입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를로의 글쓰기는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문학 및 문화 텍스트들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의 글이 있다. 또다른 유형으로는 잡지나 신문지면을 통해 발표된 시의적인 글들로서, 대개 당대 현실에 대한 논평의 성격이 강하다. 사를로 자신은 이를 “신문에서 나와 신문으로 향하는 짙막한 텍스트들”, “참여의 텍스트들”(Sarlo, 2001:9)이라고 표현한다.

까를로스 알타미라노(Carlos Altamirano)와 함께 쓴 『아르헨티나 에세이』(Ensayos argentinos, 1983)나 『주변부 모더니티: 1920-193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Una modernidad periférica: Buenos Aires 1920 y 1930, 1988), 『기술의 상상력』(La imaginación técnica, 1992), 그리고 『보르헤스, 오리아의 작가』(Borges, un escritor en las orillas, 1995) 등은 아르헨티나 문학과 문학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물들이다.

반면, 『포스트모던 삶의 장면들』 (*Escenas de la vida posmoderna*, 1994), 『스냅사진들. 세기말의 미디어, 도시 그리고 관습』 (*Instant neas. Medios, ciudad y costumbres en el fin de siglo*, 1996), 『문화 기계』 (*Mquina cultural*, 1998),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현재 시간』 (*Tiempo presente*, 2001) 등은 지식인으로서의 가치판단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저서들이다. 이들은 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아르헨티나의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과 당대 사회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시간』은 저널을 통해 발표된 비교적 짧은 글들을 묶은 저서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2001년이지만 90년대 후반에 씌어진 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판 시기상의 차이에 따른 다른 저서들과의 변별력은 엄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의 많은 글들은 처음에 잡지 <시각>(*Punto de Vista*)에 실렸었다. 그 외에 <클라린>(*Clarín*), <나시온>(*La Nación*) 등의 일간지나 <공간>(*Espacios*), <12면>(*Página 12*) 등의 잡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시각>은 1978년 사를로와 알따미라노, 리카르도 빼글리아(Ricardo Piglia), 마리아 페레사 그라무글리아(María T. Gramuglia), 일다 사바또(Hilda Sabato) 등의 좌파 지식인들이 창간한 잡지이다. 4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세 차례 발간되었는데,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의 75호(2003년 4월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되어 왔다. 처음에는 호르헤 세비야(Jorge Sevilla)가 주간을 맡았으나 1981년 12호부터 사를로가 주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잡지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문화저널의 특성이 강하다. 실제로 창간호부터 “문화잡지(Revista de Cultura)”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대한 저널이자 동시에 하나의 문화일 수 있는 저널을 펴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문화잡지’를 표방한 것은 잡지의 탄생 시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군부통치 기간 동안 <시각> 그룹은 자신들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좌파 지식인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1960년대의 혁명의 시기에는 힘을 발휘했던 맑시즘적 좌파 이념이 19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군부독재를 경험하면서 이전 시

기의 혁명 그룹들에게 실천적 바탕이 되어주었던 맑시즘적 담론들이 군부 시기 동안 무용하고 무능하기까지 했다는 자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 그룹은 문화에 대한 정치의 절대적인 우위를 문제 삼았고,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되자 그 경향은 더욱 강해져 사회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목표점으로 설정했다. 맑시즘적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야를 돌린 것은 비단 <시각> 그룹만이 아니었다. 멕시코에 망명해 있던 좌파 지식인과 페론주의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창간한 <논쟁>(Controversia, 1979-1981) 그룹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시각> 그룹의 입장은 <각주>(Pie de Pagina, 1983-1985)와 같은 급진좌파 세력으로부터 ‘좌파적 자유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를로 사유의 궤적은 근본적으로 <시각> 그룹이 취한 궤적과 다르지 않다. 잡지의 편집진과 주간으로서의 사를로의 입장 사이에는 별로 균열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를로 자신도 이러한 밀착된 관계를 언급하면서 <시각>이 그들에게는 ‘형제애적 공간’이었다고 표현했다(2001: 208).

이 글에서는 사를로의 저서들 중 아르헨티나 사회와 현대 문화에 대한 시의적인 성격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므로 리뷰의 대상이 될 텍스트는 『포스트모던적 삶의 장면들』, 『스냅사진들: 세기말의 미디어, 도시 그리고 관습』, 『문화 기계』, 그리고 『현재 시간』 등이 될 터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적인 문화에 대한 사를로의 시각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지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문화에 대해 대중계층이 어떤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파악할 수 있다. 리뷰의 방식은 저서들의 대표적인 글을 선정하여 그것이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하겠다.

우선 1996년에 출간된 『스냅사진들』이라는 책의 제목은 사를로

자신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먼저 현재라는 시간에 포착된 아주 간략한 장면들에 대한 에세이라는 뜻이다. 또한 현대 문화에 있어 경험들은 스냅사진처럼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변덕스러운 휘발성의 경험인 것이다(1996: 7). 이 책은 세기말 미디어 문화와 그것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대인의 생활 습성에 대해 기술하고 동시에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이 책의 3장은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가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 「미디어 민주주의와 그 한계」(La democracia medi tica y sus l mites)와 「가브리엘라와 마리아노」(Gabriela y Mariano)이다. 두 글이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는 동일한 것으로, 1995년 5월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오스왈드 대 윌너(Osswald & Wilner) 사건’을 말한다.

가브리엘라 오스왈드와 에두아르도 윌너는 8년 전 결혼한 후 캐나다로 갔다. 거기서 윌너는 대학원 과정을 밟았고 오스왈드는 아르바이트와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딸아이를 낳았고, 몇 년을 더 함께 살다가 둘을 헤어졌다. 가브리엘라 오스왈드는 남편의 허락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 에두아르도 윌너는 딸아이 양육권을 놓고 캐나다 법원에 재판을 걸어 승소했다. 가브리엘라는 캐나다 판결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윌너가 이겼다.

이것이 사건의 일단이다. 어쩌면 이것은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가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현대 세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사회면의 심상한 기사로 언급되고 말았더라면 아마도 두 남녀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에 그쳤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노 그론도나(Mariano Grondona)라는 텔레비전 제작자의 미디어 메카니즘이 이 사건에 개입됨으로써 사적인 성격의 사건이 공적인 장으로 유입되고 확장되었다. 그론도나는 법원의 판결이 가

브리엘라 오스왈드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을 할애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을 보도하고 오스왈드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그리고 모성이라는 자연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법은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갔고, 많은 어머니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사실 자연법이나 모성과 같은 자연적 본능에 바탕을 둔 논쟁은 해결책의 모색을 공허하게 만든다. 자연이나 본성에 대한 신화화는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이 캐나다에서 남미인에게 가해진 인종차별의 증거라는 여론도 들끓었다. 그리하여 가족과 국가라는 테마는 아주 수월하게 서로 결합되었던 것이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대통령에서 축구선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금방 선거 뉴스들 속에 묻히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보도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 사건이 선거 이상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한 편의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들과 사적인 관계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듯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들을 언급하곤 했다. 마치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텔레비전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들에게 익숙해지고 친밀감을 느껴 이름이나 애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실은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시청자 대중이 미디어산업의 스타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친밀감일 뿐이다. 사를로는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조종과 조작에 호응하는 이 대중을 ‘전자 대중(publico electrónico)’(136)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르헨티나 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 현상은 “미디어의 산업적 필요성과 갈등에 빠진 한 여자의 필요성 사이의 연합”(135)이라고 비판했다. 마리아노 그론도나는 새로운 전자대중 계층의 논리를 가장 잘 제시해주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제도 민주주의’와 ‘여론 민주주의’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 대중의 열정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집

되어 사법 제도의 결정에 항의를 표현했던 것이다. 즉, 전자대중 계층은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곳일 뿐 아니라, 또한 여론을 통해 제도에 반기를 드는 장소가 되어간다. 제도는 일반적 관점으로 종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갖게 되지만, 여론은 모성본능과 같은 자연법에 좌우되어 인간적인 굴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를로의 다른 표현으로 ‘미디어 민주주의’에 의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이 침범당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여교사들, 번역자들, 그리고 전위주의자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저서 『문화 기계』에서는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세 가지의 문화 기계를 이야기한다. 먼저 20세기 초의 사범학교를 졸업한 유럽이민자 혈통 여교사들의 에피소드가 있다. 두 번째의 것은 20세기 초에 <수르>(Sur)의 주간이면서 외국문학, 특히 프랑스 문학을 아르헨티나에 소개한 번역가 빅토리아 오캄뵈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마지막으로 1970년 11월 정치적 단편영화를 찍은 젊은 전위주의 영화인들의 증언들로서, 이 증언들은 혁명 영화를 만들되 혁명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형식을 구사하려는 전위주의자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곧, 정치와 예술, 혁명 이념과 전위주의 영화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세 존재를 ‘문화 기계’라는 제목과 연결시켜 직접적으로 말해보면 여교사는 ‘훈육 기계’, 오캄뵈와 <수르>는 ‘번역 기계’, ‘전위예술 기계’ 정도가 될 것이다.

여교사라는 문화 기계는 자기가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세세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기계이다. 나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과도하게 수행하는 기계이기도 하다. 로사 델 리오라는 여교사가 1921년 어느 날 머리에 이가 가득한 학생들에게 위생의 실천을 가르치겠다고 집단으로 머리를 깎아버린 일(1998: 54-57)이 그 예이다.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가하는 이런 식의 훈육은 자신이 사범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했던 이 퇴임한 여교사는 교육은 실천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더구나 무상교육을 통해 교사가 될 기회를 준 국가가 자신에게 기대한 것은 유럽이민자들과 농촌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올바른 국민

으로 훈육시켜 내는 것이고, 자신의 교육 방식이 그에 합당하다는 생각에 전혀 의구심이 없었다.

사를로가 이 에피소드에서 주목하는 것은 푸코가 말한 학교를 비롯한 제도들의 훈육성 뿐만이 아니다. 나아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드러난 그 여교사의 말과 태도의 권위적인 특성에 주목한다. 이민자의 딸인 그녀가 학생이었을 때 자신의 여선생님이 보여주었을 권위성과 엄격함이 그녀에 의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를로는 그녀의 이 태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녔을 그 권위적인 태도를 읽어내었다. 문화민족주의(Nacionalismo cultural)의 방향을 따르고 있던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 국가는 사범학교 교육을 통해 그녀를 ‘국가로봇(robot estatal)’(61)으로 길러냈고, 그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침서와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마술적인 힘을 믿으며 훌륭한 훈육 기계가 되었던 것이다.

여교사들의 에피소드를 포함한 세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문화 기계의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사를로가 이 세 문화 기계 에피소드를 통해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모순적인 존재는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또 무한히 되풀이될 수 있는 무엇”(1998: 292)이라는 점이다. 책을 쓰는 동안 자신이 그랬듯이 독자들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과거의 그런 속성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사를로의 말은 아마도 20세기 말의 아르헨티나 문화 현상들이 20세기 초의 것과 유사성이 많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문화 기계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과는 별개로 문화 기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작동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현재 시간』은 앞서서도 말했던 것처럼 문화 변동에 대한 저널리즘 글들의 발췌집이다. 그것은 최근 몇 십 년간 일어난 도시의 공적 영역의 변화, 빈민계층을 소비자로 취한 대중스타 로드리고의 죽음, 가사의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래하는 솔레단의 상업적 성공, 마약과 폭력의 관계, 대중적 종교성과 이교적 영성의 현대적 형태들, 월드컵 경기, ‘민중 재판’ 등을 고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링크는 이 책이 “아르헨티나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토론

주제가 될 만한 도서”(Link, 2)라고 했다.

『현재 시간』에는 보편성을 지니는 목소리로 인정받던 고전적 지식인과 같은 지식인이 현대에도 가능한가를 논하는 글이 실려 있다. 「당파가 될 만한 보편적 목소리?」(La voz universal que toma partido?)가 그것이다. 이 글은 먼저 말비나스 전쟁에 대한 회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는 1976년 이후 20여 년 동안 아르헨티나 지식인의 모습을 고백한다. 이는 고전적 지식인과 매스미디어적 지식인의 대비로 이어진다. 끝으로 사를로는 비판적 사유(pensamiento crítico)의 공간은 여전히 필요하고 정치와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둘 사이의 긴장성이 유지될 때 그 힘이 발휘된다고 결론 내린다.

사를로가 보는 말비나스 전쟁은 “비이성적인 영토전쟁의 격분이자 민족주의의 역설적인 재탄생”이었다.(2001:198) 말비나스 전쟁이 계속되던 몇 달 동안 자신이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고 말한다.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통해 집단 열정이 유난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비나스 전쟁은 집단 열정의 모호함과 불분명함이 극치에 달한 시기였던 것이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었다는 느낌은 사를로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주었다.

사를로는 말비나스 전쟁이 거의 전적으로 미디어적 무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텔레비전의 동시대성을 맞본 최초의 시기는 월드컵이었다. 월드컵 동안 위성중계를 통해 여러 지역들이 통합되었고 컬러텔레비전의 기술공학도 제 몫을 했다. 그러나 말비나스 전쟁은 거의 전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조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텔레비전의 대규모 조작에 의존한 사건이었다. 수백 만 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남대서양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깃발을 단 전함들이 항해하는 모습이며 아슬아슬한 비행기들이 가르고 나가는 파타고니아의 하늘, 항공모함들과 아군 적군이 쏘아댄 포탄의 화염으로 뒤덮인 기지들, 그리고 그 기지들에 배치되어있는 군사들의 모습”(199)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를로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조작된 그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시청각 매체의 지속적인 박람회를 통해 호전적인 이데올로기가 양산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즉, 여배우들과 유명인사들이 기증한 귀금속 바자회가 열리고, 언론인들은 열렬한 반제국주의자가 되었으며, 텔레비전에서는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짓 뉴스를 몇 주 동안이나 내보냈다. 그 사이 영국인들은 섬의 저편에서 최후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미디어적으로 조작된 말비나스 전쟁의 이미지들이 유발시킨 그런 열광에 가담하지 못한 사를로와 같은 지식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상식과 집단 욕망에서 멀리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공동체에서 소외된 지식인들”이었다.(200) 전쟁 앞에서 비판적 담론은 무능했다. 미디어가 사건을 구성하고 승리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 담론이 청취될 수 있는 조건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를로는 청취의 조건을 갖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잘못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사르트르의 죽음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고전적인 지식인의 공간은 없다고 한 부르디외의 말을 상기시킨다. 사르트르는 강력한 문화 전통이 ‘하나의 당을 형성하는 보편적 목소리’로 인정되는 그런 공간을 살았던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서구사회에서 그러한 고전적 지식인의 공간은 희석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오늘날은 지적 담론들끼리 경쟁하는 시대이다. ‘고전적인’ 지식인들과 다른 층위에 매스미디어적 지식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식인의 담론 공간은 다른 공간에서 유래한 담론들에 의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세계의 가치의 상대주의와 미디어적 균등화로 인해 비판적 지식인의 담론적 진실이 독점하던 시대는 멀어진 것이다.

군부독재 시절 지식인의 위상에 대한 자기 비판적 검토에서 그 균열은의 기미는 시작되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최근 20년간 지식인들에게 있어 정치를 문화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좌파 세력 입장의 역사적, 경험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1976년의 쿠데타와 함께 좌파 이데올로기의 물질 토대들이 파괴되고 말았다. 그 압제를 견디고 살

아남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버린 무대와 대면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혁명 조직들은 지식인을 정치에 종속시키기도 했고, 지식인들의 대중적 동원, 노동자들의 소요, 거리 투쟁의 지형 등은 군부시대의 압제와 함께 완전히 시들고 말았다. 쿠데타 후 몇 년 동안 지식인들의 생존전략은 각양각색이었다. 혁명이 절정이었던 시기에는 경멸했었던 아카데미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4, 5년의 독재시기 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거의 목격할 수 없던 미약한 문화적 저항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를로를 비롯한 <시각> 편집진들은 이 친밀한 공간에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의 이론적 가정들에 대한 재점검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부독재의 시절을 경험하는 동안 분명해진 것은 무엇인가? 사를로는 비판적 사유는 그 개념상 자율적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자율성(autonomia)과 비판(critica)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어느 한 쪽을 배제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것이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지식인과 정치의 관계, 예술과 이념의 관계, 사상·가치·실천 사이의 관계에는 궁극적 단일성이 없다는 것을 역사의 희생을 치르고 알게 된 셈이었다. 곧, 상이한 것들 사이에서 단일성을 모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단일성은 문제를 설정하는 하나의 역사적 방식이었고, 아르헨티나 20세기 역사에서 최악의 결과들을 초래한 방식일 따름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를로는 정치가 지적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확인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은 두 용어에 대해 평등이 아니라 서열성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속의 관계가 강제되었을 때 정치에게도 비판적 사유에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고전 사회학이 모더니티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었을 따름”(209)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라고 말한다.

그는 비판적 사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의 후퇴와 공격

인 문제에 대한 경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와의 긴장된 관계가 없는 비판적 지적 실천은 생각하기 어렵다. 비판적 사유의 자율성이란 것은 그러한 실천의 조건일 따름이다”(210). 사를로가 그리는 정치와 지식인의 관계는 다중적이고 비서열적이며 무한히 복잡한 관계이다. 가령, 비판적 사유는 정치에게 행동의 토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통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속적인 형식도 없고 이미 고정된 무대도 갖지 않은 채 부단히 발생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다.

사를로는 사르트르식 지식인 패러다임의 종결되고 ‘당파가 될 만한 보편적 목소리’는 더 이상 보편성을 갖지 못하지만, 여전히 ‘당파가 된다(tomar partido)’는 말은 필요한 것 같다고 표명한다. 왜냐하면 해결책들이 표류하고 문제들이 달라졌다 해도, 비판적 담론의 오류와 현재의 허약성이 인정된다 해도 비판 담론이 고갈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도 사회운동도 매스미디어도 시청각 세계의 음흉한 의도에 맞서는 예술의 저항성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포스트모던적 삶의 장면들』에서도 엿보이던 포스트모던 시대 지식인에 대한 사를로의 다소 낙관적인 기대와도 상응하는 것이다.

Abstract

Beatriz Sarlo es una de los investigadores más nombrados de la literatura argentina, y también es una de los intelectuales actuales más citados en la sociedad argentina. La investigadora y su grupo fraternal de Punto de Vista, desde los años setenta han tomado el camino izquierdista, pero no olvidando de la experiencia errónea de la izquierda radical en los setenta.

Sus obras intelectuales se pueden dividir en dos clases: por un lado, los escritos analíticos y teóricos en cuanto a la literatura argentina, como *Ensayos argentinos*(1983), *Una modernidad periférica: Buenos Aires 1920*

y 1930(1988), *La imaginación técnica*(1992), y *Borges, un escritor en las orillas*(1995), etc. Mientras son escritos ensayos *Escenas de la vida posmoderna*(1994), *Instantáneas. Medios, ciudad y costumbres en el fin de siglo*(1996), *Mística cultural*(1998), y más reciente *Tiempo presente*(2001).

En esta reseña se toman como objeto estos últimos. Algunos de ellos tratan de explicar y analizar la cultura posmoderna y massmediática, y otros son ensayos de reflexión sobre el lugar y la función del intelectual en la poca posmoderna. Sarlo nunca pierde un punto de vista crítico. Y sigue afirmando una expectativa cautelosa con respecto a la función y lugar del intelectual, a pesar de las transformaciones culturales y espaciales contemporáneas.

Key words: intelectual, cultura posmoderna, medios de masas, pensamiento crítico/
지식인, 포스트모던 문화, 매스미디어, 비판적 사유

논문투고일자: 2003. 5. 13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참고문헌

- Altamirano, C & Beatriz Sarlo(1983), *Ensayos argentinos*, Buenos Aires: Ariel.
- Link, Daniel, “Bibliografía obligatoria”
<http://www.pagina12.com.ar/2001/suple/libros/01-10/01-10-07/nota2.htm>
- Patino, Roxana, “*Punto de Vista*, La persistente mirada intelectual”,
<http://www.iacd.oas.org/RIB%201%2098/vista.htm>.(*Revista Interamericana de Bibliografía*, 1998, No. 1)
- _____, “Culturas en transición: Reforma ideológica, democratización y periodismo cultural en la Argentina de los ochenta”,
<http://www.iacd.oas.org/RIB%202%2098/patino.htm>(*Revista Interamericana de Bibliografía*, 1998, No. 2)
- Sarlo, Beatriz(1988), *Una modernidad periférica: Buenos Aires 1920 y 1930*, Buenos Aires: Ediciones Nueva Visión.
- _____(1992), *La imaginación crítica*, Buenos Aires: Ediciones Nueva Visión.
- _____(1993), “Arcaicos o marginales? Situación de los intelectuales en el fin de siglo”, *Punto de Vista*, No. 47, pp. 1-5.
- _____(1994), *Escenas de la vida posmoderna*, Buenos Aires: Ariel.
- _____(1995), *Borges, un escritor en las orillas*, Buenos Aires: Ariel.
- _____(1996), *Instantáneas. Medios, ciudad y costumbres en el fin de siglo*, Buenos Aires: Ariel.
- _____(1998), *Méjica cultural*, Buenos Aires: Ariel.
- _____(2001), *Tiempo presente*, Buenos Aires: Siglo XXI.
- Spiller, Roland(ed.)(1995), *Culturas del Río de la Plata(1973-1995)*, Frankfurt am Main: Vervuert Verlag, pp. 287-312.